



2024년 6월 23일(제1199호) 연중 제1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봉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부제 때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지냈던 시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배를 탔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은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이었지만 바람이 아주 거세게 일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배가 물을 떠나 갈릴래아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고, 바다에 있는 것처럼 파도가 들이치기 시작하더니, 무언가를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배가 흔들렸습니다.

‘이러다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몸이 경직되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직 사제서품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무사히 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시간이 지나자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잦아들어서 동기들과 저는 무사히 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위기에 놓인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청을 들어주시고는 이내 왜 겁을 내고 믿음이 없는지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건지, 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지, 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불만과 불평만을 토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겁을 낼 필요가 없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보호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모른 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박형식(2008년) 신부
한양대(제15북수임무비행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읍 38,1.8-11
- 회 답 송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 특 시 2코린 5,14-1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복 음 마르 4,35-41
- 영 성 제 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다섯 번째 시집

현 조정은 이제까지는 우리 천주교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잡은 대신들은 안동 권씨 집안 출신들이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에게 지나친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 있는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잔혹한 박해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를 전파하고 천주교에 입교하는데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를 금하는 박해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즉 마음이 착한 관원들은 천주교인들을 묵인하지만, 마음이 악한 관원들은 교우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박해합니다.

더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즉시 모든 세속적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가 올 때까지 망설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의 진리를 깨닫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동되어 한편으로는 신앙을 포용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박해를 만나면 극도의 어려움과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차라리 종교의 완전한 자유가 공식적으로 선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소문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리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종교의 자유가 왔을 때 별다른 손해 없이 자기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박해의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용맹하고 굳세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 최고 양반 집안 출신인 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왕은 김 씨라는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군대를 중국에 보내 천자(天子)를 돕게 했습니다. 김 장군이 용감히 싸워서 반란을 진압했고 또 다른 혁혁한 공훈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김 씨에게 큰 벼슬을 내려 요동의 방백(方伯) 영주로 삼았고, 그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찬란히 높은 벼슬을 내려서 그 집안이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임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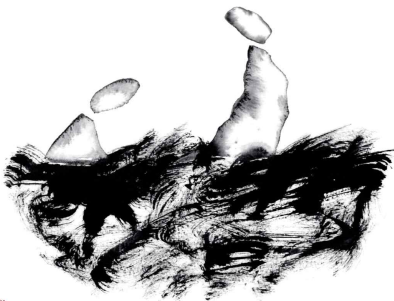


포기할 것 없다

들어서지 말아야 했어. 하늘에 희망을 두고,
포기하지 말아야 했어. 일어나 나가면 되는 거다.

후회할 시간 없다. 그럼 되는 거다.

고개를 들어,
허리를 펴고.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갈릴래 바다에서의 폭풍



이비지 브뤼켈(1568년 ~ 1625년) / 1596년경 제작
유화, 26.6x35cm / 타이센-보르네미스지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오늘 복음 말씀에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이 그림은 이 장면을 매우 충실하게 재현하였다.

성난 파도에 거칠게 흔들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그리고 다른 배들이 배경에 보이고, 하늘도 번개가 번뜩이는, 한마디로 배를 탄 이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속절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에는 언제나 불확실함이 있으며, 만일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리 지기 지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에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려는 일에는 여진히 불확실성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기기에 계시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느님을 확실히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이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표지입니다”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토니오 스피타로와의 대담).

인간은 하느님의 신비를 완전히 알 수 없기에, 너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리지 노력할 뿐이고, 그 노력으로 숨겨진 의미를 아주 조금씩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고통, 예기하지 못한 사고, 소중한 이와 헤어짐 등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붙일 수야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찾는 여정을 걸어갈 뿐입니다.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 발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2주일: 진상대 오영환 신부

◆ 교구장 동정

- 인천해군(인방사)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23일(주일)
- 2024년 작은형제회 사제 서품식
때·곳: 6월 24일(월) 15:00,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